



3면

"월북 표명" 자료 삭제 안해

전주매일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음 10월 4일) 제31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스타트업, '창창한 앞날' 연다

제7회 전라북도 창업대전

창업지원 프로그램

내달 4일까지 진행

전북대 창업지원단 등

29개 기관 참여·운영



27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Start-up 전북 창업대전에 김관영 도지사와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창업대전 선포식을 갖고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에 깜짝 출연해 전북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중기청)은 27일 전주대학교 회관에서 도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제7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전북도와 중기청이 지난 2016년부터 지역내 창업 붐 조성 과 과확산을 위해 매년 '창업주간'을 선포하고 도내 스타트업과 관련된 산·학·민·관 협력으로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해 오고 있어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다.

올해 창업대전은 '창을 열 듯,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창창한 앞날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스타트업이 여는 창창한 내일'이라는 표어 아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전주대·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29개 기관이 총 30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번 대전은 기업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발

족돼 7년 이하 도내 스타트업 대표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행사 기획에 참여해 왔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테라릭스 주식회사, 이브이엔솔루션, (농·주)제이웰푸드, (주)그린어스 디딤스토리, 주식회사 포아위스킨, 뽕곰은 오남매 등이 있다.

이날 창업대전 선포식에는 70여개 스타트업과 약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지역 투자조합 결성식, 투자 협약식, 인수합병(M&A) 체

결식 등으로 진행됐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태영 대표(테라릭스)는 "이 행사의 주요 고객인 창업기업이 현재 필요한 것과 앞으로 필요할 분야를 전라북도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창업문화 확산과 예비·초기 창업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동시에, 유능한 인재 육성과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면서, "스타트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 전라북도 창업대전은 11월 4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전라북도 창업대전(www.jbstartup.com)'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선의의 비판, 언제든 해주세요'

전북도, 도정 내부 비판·대안 제시 역할 수행
'선비팀' 1기 선발 마쳐... 내달부터 본격 활동
김관영 도지사 "제안 의견 반영토록 적극 지원"

"도지사에게 쓴소리 해주세요" 27일 전북도는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할 '선비팀' 1기 선발을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비팀은 조직 내부를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무비판적으로 문제를 답습하는 행정이나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의미하면서 강력한 선비상을 상징한다.

전북도는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9명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5급 공무원, 도정 실무 담당하는 6~7급 공무원, MZ 세대인 새내기 공무원 등 다양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선비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대 입장을 취하며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1기 선비팀은 11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2기 선비팀부터는 6개월 임기로 활동한다. /김경수 기자

회의 진행은 중·매터버스 등 온라인 운영체제를 활용해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안건은 간부회의 안건이나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해 팀 내부에서 자유롭게 발굴 선정한다. 회의결과는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며 관련 부서에 통보되어 시정·개선될 때까지 관리되며, 회의내용은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김관영 도지사는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선비팀이 도정에 대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기대한다"며, "선비팀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9월 팀별 벤치마킹 사례 보고에 이어 '내가 도지사라면' 청원 제안,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통 등 조직안에서부터 혁신을 꾀해 도민 중심의 새로운 전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군산 광역해양레저 복합단지 통합개발 박차

새만금위원회 심의 통과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통합개발계획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

2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석 전북대 교수)가 제27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고군산군도 무려도 일원에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고군산군도 지역은 선유도 인근 도보여행(트레킹) 등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해 개발이 시급했다. 이번 계획 중인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젊은 세대의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시계절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조성돼 고군산군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사냥장, 실내낚시, 인공파도풀, 레저레이크(카약·카누) 등의 '해양레저체험시설'과 함께 숲속 가족 캠핑장 등 산림휴양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398억원 가운데 50%인 199억5,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조업 중심의 군산시 경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토 일요일신문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기로...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가 겨울철 재유행 기로로 보이고 있어 추가 백신 접종과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일일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4일 1,046명, 25일 1,209명, 26일 1,003명이 발생해 지난달 27일(1,180명) 이후 27일 만에 다시 1,000 명대로 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20일 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 재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는 감염병 재유행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동절기 접종으로 항

동절기 접종 18세 이상 확대

체형성숙을 증가시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8명(밀접, 밀접, 밀폐)환경 및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27일 0시 기준)까지 도민(178만명) 중 기초접종 158만명, 동절기 접종 5만2,000명이 접종을 완료해 기초접종 88.8%, 동절기 접종 2.9%로 전국 1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군 협력으로 접종

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동절기 접종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 및 신규 2가 백신 도입으로 겨울철 재유행 적극 대비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실시했으며, 27일부터는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로 확대한다. 다만, 건강취약계층·보건의료인에게는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백신은 2가백신 3종(모더나BA.1, 화이자BA.1, 화이자BA.4/5)으로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접종이 곤란한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도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확대되는 동절기 접종 일정은 백신별 도입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사전 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1339 콜센터,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또한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방문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전자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신규 2가 백신은 기본 백신보다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만큼, 최근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발생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